

形을 전혀 남기고 있지는 않다. 現高一尺六寸四分 直徑二尺七分 기 타相輪이나 笄石은 찾을 수가 없었다.

(一九六八年 八月 三十日)

〔後記〕浮圖破材는 李氏家の 연자방아 二石과 더불어 우선 이 곳 聖 住國民學校 花壇에 運搬 保存키로 하였다.

### 法住寺 捌相殿의 舍利裝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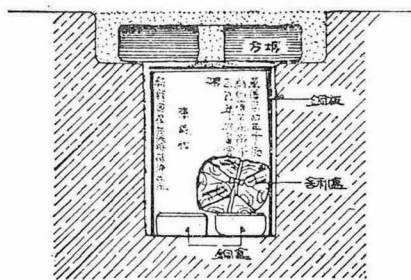
崔 淳 雨

文化財管理局이 시행하는 法住寺 捌相殿의 解體重修工事に 따라 一九六八年 九月 二十一日 塔心礎石위에 세워졌던 巨大한 心柱를 내리는 作業이 이루어져서 筆者는 黃壽永 秦弘燮 敎授等과 더불어 이에 立會해서 이 塔의 舍利裝置調査를 擔當한 바 있다. 이미 豫想되었던대로 이 心柱를 받치고 있던 古制의 塔心礎石 上面에는 方形의 舍利孔이 있어서 그 안에 安全하게 藏置되었던 舍利肚嚴一式을 發見하였으며 이 遺物은 九月 二十二日 法住寺別室에서 寺刹側 立會下에 綿密한 調査가 이루어졌다. 韓國에 現存하는 唯一한 木造塔婆인 이 捌相殿建物은 비록 壬辰倭亂後에 重建된 것이기는 하지만 불타버린 原基壇 위에 다시 세운 것임으로 그 舍利裝置는 現存한 木造塔婆속에 남겨진 完全한 舍利裝置의 唯一例로서 더러므로 그 格式과 內容이 注意된다 할 수 있다. 과거 韓國木造塔婆의 舍利裝置에 대한 調査例로는 一九六六年 十月 文化財盜掘常習犯 一黨이 檢舉됨에 따라 그 盜掘被害가 밝혀진 慶州 皇龍寺 木造塔址 舍利裝置의 殘存遺物을 現地調査①한 報告 및 當局에 押收된 그 一部遺物이 있어서 이번 捌相殿舍利裝置의 調査와 더불어 古格을 內包한 韓國木造塔婆의 舍利裝置樣式考察에 좋은 知見이 되어 주었다.

1)

舍利孔(左側圖面)은 塔心礎石 上面中央에 方形二段構造로 되어 있어서 그 上段部는 舍利裝置를 保護하기 爲한 蓋石이 덮이는 언덕 구실을 하고 그 下段部에 舍利를 安置하도록 設計되어 있다. 이러한 二段構造의 木造塔婆의 舍利孔은 前記한 皇龍寺 木造塔址 心礎舍利孔의 古制가 反映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舍利孔의 規格은 皇龍寺것이 上段 三九cm 方格, 깊이 八cm, 下段이 三〇cm 方格, 깊이 二七cm인데 비해 捌相殿것은 上段 二九·七cm 方格, 높이 六·五cm, 下段 一七·八cm x 一七·二cm 方格, 깊이 一一·二·六六cm로서 若干 작지만 格式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처음 心柱를 들어낸 후의 舍利孔은 香木 또는 心柱 밑에서 떨어져진 것으로 보여지는 腐蝕物로 덮혀 있었고 杏實로 보여지는 열매들이 그 위에 드문드문 섞여 있었는데 이 杏實에는 個個의 側面에 半月形으로 깎아낸 구멍이 하나씩 있음이 注意되었다. 舍利孔上段에는 두께 四·六cm 一邊 二·三·三cm 크기의 方形塼이 덮혀있어서 舍利孔 上段보다 작은 이 方形塼둘레의 餘地를 石灰로 充填했으며 이 方形塼의 中央에 直徑 六cm 內외의 圓形 구멍이 있어서 原來 여기에 金屬製의 고리를 달았던 것으로 짐작되나 고리는 없고 石灰로 메꾸어져 있었다. 皇龍寺 木造塔址 舍利孔 蓋의 경우는 方形花崗石의 中央에 구멍을 뚫고 굵은 靑銅고리를 달았었음에 비추어 이 구멍의 用途는 능히 짐작이 된다고 할 것이다.

舍利孔蓋의 구실을 하고 있는 이 方形塼을 들어내면 舍利孔의 四壁과 天蓋를 이루는 五張의 銅板이 둘러져 있으며 이 天蓋銅板은 方形塼의 底面과 石灰로 溶着되어 있는 것



法住寺 捌相殿 心礎石舍利

으로 보아 方形壇 둘레의 空地와 구멍에 부어서 察封을 괴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三

舍利孔內 四壁과 天蓋구실을 하고 있는 銅板 五張은 天蓋를 들고 보 면 마치 舍利外函같은 구실을 하고 있으나 모두 分離된 銅板들이며 더 구나 地板이 없고 자기 조금씩 礎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各張의 內外面 에 다음과과 같은 刻銘이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塔誌로서의 意義를 지니 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南板內面〉(各板의 크기 一一·二cm × 一五cm 內外 字徑 一·五cm 內外)

萬曆三十四年丁酉九月日倭人盡斃

爲白有去乙壬寅十月日化主溼開人

乙巳年三月念九日 大高柱 立柱

李 時代

朝鮮國僧大將 裕淨比丘

〈南板外面〉

緣化秩 連春

來往夢習□來

正云 志還韓成會

力明 韓玉春大卜

應元 金小 春立

寶一 供養主 法覺代任

洪印 執頭 敬和淨仁

戒一 居士 安奉伊

持殿芝先 別座 敏甘

〈西板內面〉

寺中名錄 文旭 光弘 曇位

尚諸 惟 法信

住持 元照 行修 玄希 德居

時三寶敬禪 戒唯 妙玄 法訓

第九卷 第十一號 通卷 百號

山中各德海元 敬修 曇己 惠元

法器 性均? 道英 明修 忠贊

惠能 惠日 石敬 戒元 寶後

道悅 道祚? □仁 天熙

寶云

〈西板外面〉

化主秩

大化主 妙心 主人 宋介玉

高柱大化主□淳 姜永化山

妙訓 李命道

應天

末醬化主 妙信

一眞

空印

戒岩

〈東板內面〉

供養大施主 委命

布施大施主 成希春兩主

瑠璃大施主 姜承德兩主

舍利桐施主 梁希忠兩主

表債大施主 金責□

〈東板外面〉

成造大施主 鄭罷伊兩主

供養大施主 李順良兩主

高柱大施主 正云比丘

林木大施主 朴千仁兩主

高柱大施主 主日菴比丘

林木大施主 韓莫同兩主  
末醬大施主 鄭憲石兩主

妙正比丘  
〔北板外面〕

木手硃

大木 一均 克教 石手 金卜只

戒珠 浩印

成來 堂達

戒連<sup>?</sup>淨灯

敬牛 印憲

明玉 海敬

惠覺 天正 大正 金卜只

天正 玄搞

元印

忠<sup>??</sup>修 敬眞

〔天蓋板內面〕

供養大施主 徐貴文

施主莫介

布大施主 金思同伴里今

表債大施主 金仁卜

布大施主 趙明瑞兩主

四

以上塔誌銘 南板內面에 보면 萬曆二十四年(事實은 二十五年) 丁酉九月(一九五七 宣祖三十年)에 倭人이 盡燒한 후 壬寅(一六〇二 宣祖三十五年) 十月에 化主 罷이 開入하고 乙巳(一六〇五 宣祖三十八) 三月念九日에 上高柱 立柱 했다는 事實과 함께 「朝鮮國僧大將裕淨 比丘」라는 記銘이 있어서 法住寺는 丁酉再亂에 倭兵들이 焚燒했음이 밝혀졌고 이 절의 再建에 僧惟政이 關與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泗溟大師 惟政과 이

塔誌의 裕淨은 비록 글자는 다르지만 同音일 뿐더러 朝鮮國僧大將이라는 직함으로 보아 充分히이 比定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塔誌銘뿐만 아니라 다른 記錄에서 惟政은 惟政、惟淨 등으로 쓰여진 例가 있는 까닭이다.

다만 이 捌相殿木部 解體作業 中 四天柱 上部에 자을린 東西 內目道里 底面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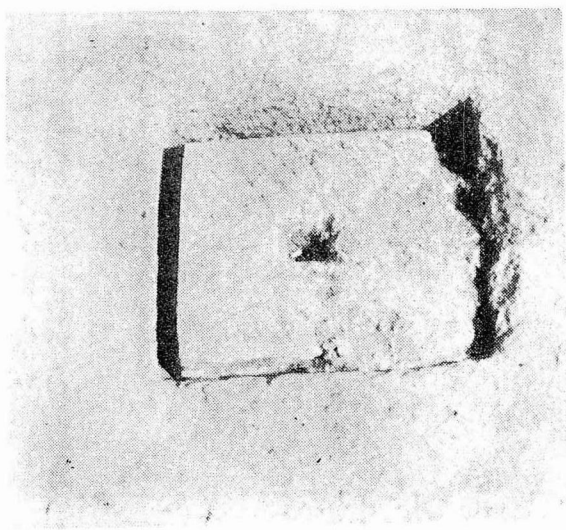
發見된 墨書銘<sup>②</sup>에 天啓六年(一六二六年 仁祖四年) 丙寅에 上梁한 것으로 되어 있는 記錄에 比해서 塔誌의 高柱立柱한 乙巳年(一六〇五)은 二十一年이나 앞선다는 뜻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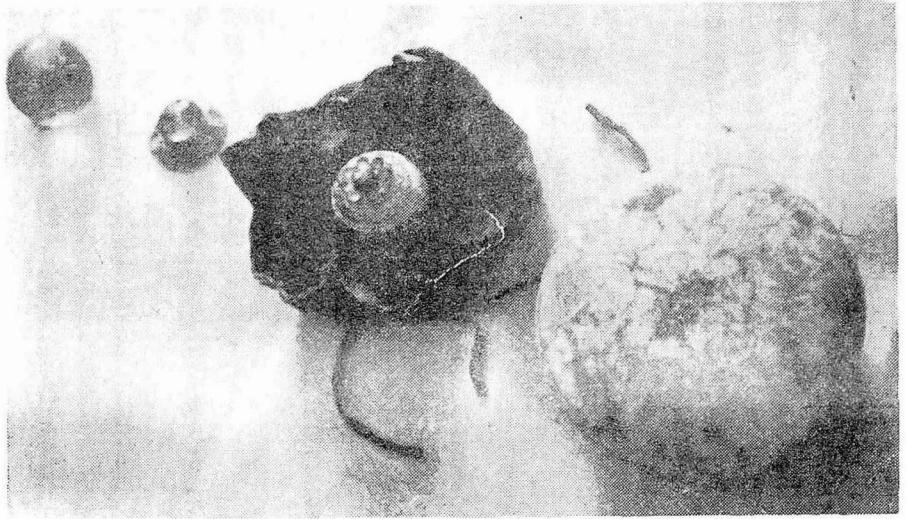
高柱를 세운후 二十一年만에 上梁했다는 事實은 많은 疑問點을 內包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五

舍利盒은 以上 五張의 銅板에 감싸여 직접 舍利孔底의 石面에 놓여 있었다. 맨밑바닥에 뚜껑이 열린 靑銅盒의 身部를 舍利孔 西南隅에 놓고 그 뚜껑을 東北隅에 놓은 후 이것을 밑받침으로 삼아서 그 위에 錦緞보자기에 싸인 舍利盒包가 두개 위에 어중간하게 얹어 있었다.

밑바닥 靑銅盒의 身部에는 綠色瑠璃로 된 舍利瓶破片이 담겨 있었으며 이것은 重建 때 舍利裝置 一씩을 새로 奉安할 때 깨어진 元來의 舊舍利器를 保存하기 위하여 함께 넣은 것으로 해석되며 뚜껑은 비인 채였다. 錦





緞으로 거죽을 하고  
素文縞으로 안을 한  
끈이 달린 褐色 二  
重보자기에 八重으  
로 감싸여져 있는 이  
舍利盒은 大理石製  
로서 金銅製 蓮唐草  
打出文을 장식한 壁  
玉形盒받침 위에 놓  
여져 있다.

이舍利盒 八重보  
자기는 모두 同質의  
비단으로서 속으로  
들어갈수록 보자기  
의規格은 작아진다.  
겉으로 재봉한 이  
보자기들에는 보자  
기안을 뜯어 보지 않  
으면 모르도록 비단  
裏面に 墨書銘을 하  
고 있는 바 너무 腐  
蝕되어 判誌調査하  
기가 매우 어려우나  
우선 判讀된 部分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

병조성王孫昌盛萬歲사빅여팅소설金剛심신안락」  
(3) 「시겨세성왕손창성」  
以上裏面墨書外에 맨안보자기, 즉 大理石盒을 직접 싼보자기에 받은  
보자기表面, 한귀통이에 「을사생 최씨」라는 施主의 이름이 보인다.  
이 塔의 高柱立柱가 乙巳年이였으니 이 「을사생 최씨」를 「乙巳生 崔  
氏」로 읽을 경우 高柱立柱當년에 還曆에 該當하는 어느 女人이 된다. 비  
단보자기裏面に 숨겨져 王孫昌盛의 祝願文을 써넣은 이 崔氏라는 女  
人이 果然 누구였는지 만약에 王孫을 낳은 어느 妃嬪의 한사람이었다면  
은근히 바라보는 念願이 있어서 이렇게 숨은 祝願을 드렸을 수 있으리라  
고도 짐작이 된다.

六  
八重으로 겹보자기에 싸여 있는 大理石舍利盒속에는 錦緞 겹보자기  
로 다시 二重으로 싸여진 銀製舍利壺를 中心으로 水晶寶珠 一、水晶嵌  
玉蓮華座金具 一이 들어 있었고 銀製舍利壺 속에는 黑白兩色相을 나타  
낸 좁쌀알보다 작은 舍利 十八粒이 寶藏되어 있었다. 捌相殿舍利裝置遺  
物을 대강 略說하면 다음과 같다.

一、青銅舍利盒  
舍利孔底에 뚜껑이 열린채로 놓여졌던 것으로서 高麗香盒風의 器形을  
연상시키는 물건이며 쇠가 얇고 全面에 靑鏽가 고르게 나타나 있다.  
徑七·七cm 뚜껑뎠은 全高五·三cm

二、瑠璃舍利瓶破片 一拵  
舍利孔底에 놓여진 靑銅舍利盒안에 있었던 綠色유리瓶破片으로서 瓶  
肩部の 크기나 曲線으로 보아 佛國寺 釋迦塔 舍利瓶의 형태를 연상시키  
나. 瓶胴部는 매우 얇았던 모양으로 破片이 매우 잘게 부서져 있다.

三、大理石製舍利盒  
八重錦緞보자기에 싸여 있던 舍利外盒으로서 軟質의 大理石을 물레로  
짜아 만든 高麗香盒形盒子이다. 表面에 朱와 墨으로 唐草風의 草花文  
를 그려넣었으나 많이 滅失되어가고 있다.

徑一〇·六cm 高六·一cm

- (1) □ 슈여  
병조성王孫昌盛萬歲사빅여팅소설身如金剛심신안락」  
(2) □ 슈명?

四、金銅蓮華打出文環形具

얇은 青銅板에 打出文으로서 明朝風の 蓮唐草文을 장식하고 裏面に 青銅板으로 안을 받쳐서 中空으로 되어 있다. 鍍金色이 아직 많다.

徑七·五cm

五、銀製舍利壺

얇은 銀地로 만든 壺形으로서 四花連續七寶文과 蓮唐草文 그리고 牟尼의 境界線에는 圈點帶 壺口다리 周邊에는 蓮瓣文을 打出文으로 장식하고 있으며 甕마개는 琥珀을 嵌玉한 八花形이다. 全高三·三cm

六、水晶寶珠

銀製舍利壺와 함께 大理石盒안에 裝置됐던 것으로서 底面을 扁平하게 깎은 寶珠形透明白水晶이다. 高二·七cm

七、水晶嵌玉蓮華座金具

銀製舍利壺와 함께 大理石盒안에 裝置됐던 것으로서 頭部에 白水晶珠를 嵌裝한 八瓣伏蓮華座形이다. 높이 一·三六cm

註

- ① 秦弘燮·「皇龍寺塔址舍利孔의 調査」美術資料 第十一輯 參照
- ② 金東賢·「法住寺捌相殿上樑文」考古美術 第九卷 第十一號 參照

### 伽耶土器의 問題

#### 金 元 龍

一

新羅土器라고 불리우는 慶尙道地方 三國時代 黝青色炆器가 大體로 洛東江을 境界로 하여 그 西岸(伽耶地區)과 東岸(新羅中心地區)에서 各各地域의 特色을 지니고 있어 前者를 伽耶群, 後者를 新羅中心 또는 慶州群이라고 分類할 수 있다는 것을 一九六〇年刊의 拙著「新羅土器研究」에서 提案하였고 前者에 屬하는 地域으로 金海, 咸安, 晋州, 高靈 등 各地, 後者에 屬하는 것으로 慶州, 梁山, 達城, 昌寧 그리고 星州(이것은

西岸이지만 東岸形式) 등 地域을 들어 둔 바 있었다.

이러한 나의 地域分類 또는 地域群設定은 그때까지 出刊된 古蹟調査報告書에 報告되어 있는 土器만을 資料로 한 것인데 그 後 發掘 또는 盜掘에 依해 많은 新出資料들이 쌓이게 되어 新羅土器의 發生, 形式變遷, 編年, 地域分類 등 여러 面에서 再考, 修正해야 하고 또 새로운 整理가 可能하게 된 點이 있다. 이런 點에서 最近 金廷鶴氏가 新羅土器의 發生年代를 西紀一世紀頃으로 올려야 하고 또 伽耶, 新羅二群設定은 그릇된 것이라고 批判해 온 것은(金氏「熊川貝塚의 研究 亞細亞研究 十卷 四號」마땅한 일이며 金氏의 六章行文의 惡意에 찬 感情的인 點만 빼놓으면 學問의 發展上 十分當然한 것이다. 事實 簡見으로서도 新羅土器發生의 年代를 從來의 西紀三〇〇年代에서 적어도 二〇〇年은 올려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拙著「風納里土城內包含層報告」) 充分히 再考할 餘地가 있다고 보는 바이다. 그러나 아직 納得이 안가는 것은 新羅土器를 그대로 移植한 日本 須惠器의 경우 그 最古期가 西紀四〇〇年代로 되어 있다는 事實인 것이다.

二

그것은 何如든 金廷鶴氏는 熊川貝塚에서 나온 新羅高杯가 筆者의 所謂 洛東江東岸形式이라는 點과 前記 拙著에서 西岸의 星州가 東岸으로 들어가 있다는 등 들 들어 伽耶·新羅의 二群設定은 根據가 없고 또 歷史的 事實(星州가 伽耶였다)는 點)을 無視한 「그릇된 分類」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金氏는 여기서 말하는 伽耶土器의 伽耶, 新羅土器의 新羅를 歷史的 政治的인 伽耶新羅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며 따라서 歷史的 事實을 無視하였다고 攻擊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考古學에서 말하는 그러한 形式名은 어디까지나 地理的인 分布에 基盤을 둔 地理的인 名稱이며 歷史的 政治的 背景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다. 또 伽耶一國이었던 星州를 新羅中心群으로 넣었다고 해서 歷史的 事實云云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한가지 꼭 注意해야 할 것은 歷史的 事實은 考古學的 事實의 解釋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考古學的 事實이 歷史的 文獻的 事實에 依해서 變質, 左右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伽耶인 星州의 土器가 新羅土器였다)는 考古